

‘토피도 배트’ 덕분? 양키스 16안타 9홈런 폭발

물리학자 동원 개발 ... 공 맞는 부분에 질량 집중 설계

뉴욕 양키스가 지난달 29일 밀 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16안타, 9홈런을 쏟아내며 20-9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양키스 선수들이 사용한 특별한 배트였다.

이날 양키스 일부 선수들이 사용한 ‘토피도 배트’이라고 불리는 배트는 구단이 새로 개발한 것이었다. 이 배트는 배트 끝부분인 배럴의 무게를 조정해 공이 맞는 부분에 더 많은 질량을 집중시키게 설계됐다. 결과적으로 배트 끝이 볼링 핀처럼 두꺼워지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 양키스의 배트 실험

YES네트워크 중계진인 마이클 케이는 이날 경기를 중계하면서 이 배트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케이는 “양키스 프런트 오피스와 분석팀이 앤서니 볼피의 타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타구를 배럴이 아닌 라벨 부분에 맞추고 있었다”며 “그래서 라벨 쪽에 더 많은 나무를 배치한 새로운 배트를 제작했다. 이렇게 하면 더 단단한 부분이 공을 맞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몇 명의 양키스 선수들이 이 배트를 사용하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날 경기에서는 재즈 치좀 주니어와 앤서니 볼피가 이 배트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코디 벨린저 역시 스프링캠프와 이번 경기에서 이 배트를 사용했다. 벨린저는 “배트 무게를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선수들은 상단 무게 중심을 선호하고, 어떤 선수들은 손에 가까운 무게 배분을 원한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배트를 찾아야 한다.”

이날 양키스가 100마일 이상의 타구 속도를 기록한 12개의 타구 중 몇 개가 이 ‘토피도 배트’로 나온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치좀은 5타수 2안타 1홈런을 기록했으며, 볼피는 4타수 1안타 1홈런, 2볼넷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 배트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MLB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



▲ ‘토피도 배트’ 배트(위)와 일반 배트, 사진=mlb.com

재 리그는 배트의 길이를 최대 42인치, 배럴 지름을 2.61인치 이하로 제한한다. 배트는 순수한 원목으로 제작돼야 하고 끝부분의 컵 깊이는 1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트 그림에 사용하는 물질은 손잡이에서 18인치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 빛맞은 타구 안타 될 수도

전 양키스 선수 케빈 스미스는 경기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양키스의 배트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배트를 비교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이 배트 개발에 참여한 MIT 출신 물리학자 아론 레온하트를 언급했다.

스미스는 이 배트가 ‘토피도 배트’이라고 불렸으며, 그가 지난해 10월 양키스를 떠나기 전부터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LB에는 배트의 무게 차이, 목재 밀도, 배럴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최대 허용 배럴 크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레온하트가 내 배럴을 측정했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비교해 놀랄 정도로 차이가 컸다. 레온하트는 ‘ 살짝 빛맞았던 타구가 안타가 될 수도 있고, 안타가 더 강한 타구가 될 수도 있으며, 더 강한 타구가 홈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다.”

하지만 그는 이 배트가 마법의 도구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배트를 쓴다고 해서 누구나 타격 천재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들에게는 아주 작은 차이도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레온하트는 항상 ‘왜 이제야 이런 배트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배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작은 차이가 중요한 야구에서는 이 같은 실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지만, 양키스가 미세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구단들도 양키스의 실험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유사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새로운 배트가 야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여자 피겨 19년만에 우승

알리사 류, 복귀 1년만에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알리사 류(19·사진)가 복귀 1년만에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류는 지난달 29일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린 2025 세계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여자싱글 우승을 차지했다.

다. 미국 여자 피겨가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것은 2006년 키미 미야사키 이후 19년 만이다. 미야사키가 마지막으로 미국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안길 때 류는 1살이었다.

류는 도나 서머의 ‘맥아더 파크’에 맞춰 디스코풍의 연기를 선보이며 스핀과 스텝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류는 N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와 세계 챔피언이 되다니, 믿을 수 없다”고 감격했다.

류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6위)과 2022년 세계선수권(3위) 이후 은퇴를 선언했으나, 2024년 3월 복귀를 발표했다. 복귀 후 천천히 기량을 끌어올린 그녀는 이번 시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보스턴에서 정점을 찍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한 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클린한 트리플 점프 7개를 성공시키며 총점 222.97점을 획득했다.

이번 우승으로 류는 크리스티 야마구치, 미셸 칸, 타라 리핀스키, 키미 미야사키 같은 미국 여자 피겨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OC and LA Specialist!

✓ 똑 소리나게 밀하는 똑~순이 에이전트 써니킴에게

Yorba Linda San Lorenzo community

\$1,200,000

Black Gold Golf Course, Yorba Linda Country Club 인근! 2008년도에 지은 Single story CONDO 방 3개 화장실 2개 2,615 sqft

Yorba Linda 단층집

\$1,250,000

방 3개 화장실 2개 1,778 sqft Lot 7,130 sqft, 오픈 플로어 구조 바로 입주 가능한 컨디션입니다 Yorba Linda High 학교!

Riverside Single Family Home

\$768,888

방 3개 화장실 2 1/2개 2,793 sqft Lot 7,840 sqft Plus Den and office space, Built in 2001, NO HOA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고의 학교. 캐년 크레스트 골프장과 다운타운 가까운 거리

La Mirada Somerset gated community

\$1,038,000

Built in 1999 방 3개 화장실 2 1/2개, HOA \$159 Best Location!!

라미라다 55+ Senior 단지

\$578,889

방 2개 화장실 2개 1,067 sqft CONDO 조용하고 깨끗한 집 24시간 Guard Gated

Buena Park 한남체인 뒤에 있는 ADU

Rent/Lease \$1,800

별채 지은지 6개월 깨끗하고 조용한 집 바로 입주 가능!

[써니랑 LISTING 하면 주워지는 혜택!]
1. 무료 인스펙션 | 2. 무료 스테이징 | 3. 무료 홈 워렌티
4. 무료 터마이트 인스펙션 | 5. 무료 YARD SALE 광고
20년 경력의 금융 전문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 주택 구입도 환영!
은퇴를 준비 중이신가요?
투자를 원하시나요?
지금 상담하세요!

SUNNY KIM
써니 김 REALTOR
DRE#02078602
sunnykim612@yahoo.com



REDPOINT REALTY

T.714.503.9394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